

# 이용객 1년새 두배 급증... 무안국제공항 날개 편다

### 올해 상반기 20만6465명...8개 국제공항 중 증가율 '전국 1위' 중국·동남아 여행객 증가...운항 편수도 562→1284편 최대 증가

무안국제공항의 올 상반기 이용객이 국내 국제공항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군은 최근 한국공항공사의 통계자료(2024년 7월)를 토대로 지난 6월 말 9만7631명이었던 이용객이 올 상반기에 20만6465명에 달해 전년보다 무려 111.5%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8개 국제공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며, 청주국제공항(41.8%)·인천국제공항(39.6%)·진해국제공항(14.6%)·대구국제공항(8.7%)이 그 뒤를 이었다. 또 국제공항을 포함한 전국 15개 공항 중에서는 122.7%의 증가율을 보인 군산공항에 이어 두번째이다.

무안국제공항의 운항 편수 증가율도 지난해 562편에서 올해 1284편으로 늘어난 128.5%로 전국 공항 중 가장 높았다.

코로나 19 발생 이전인 2019년 이용객이 89만여명에 달했던 무안국제공항은 코로나 19 이후 2020년(11만여명), 2021년(2만여명), 2022년(4만여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부터 24만6318명으로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같은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의 증가 배경은 코로나 19 종식 이후 중국과 동남아 여행객들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중국·동남아 지역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무안공항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호남지역민에게 중국·동남아행 국제선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거주지역별로 이용객을 분석한 무안군 자료에 의하면 광주 63.4%, 전남 26.7%, 전북 7.1%로 나타났다.

무안국제공항은 현재 제주항공의 중국 연길(주 2회)·장가계(주 4회), 진에어의 몽골 울란바토르(주 2회) 정기 노선과 베트남 다낭(주 2회), 나트랑(4일 간격), 중국 오펬스(주 2회) 등 다양한 부 정기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중국 항저우(주 2회), 라오스 비엔티엔, 루앙프라방(4일 간격) 등 정기노선과 일본 기타큐슈, 베트남 하노이 등 부 정기 노선도 운항할 예정이다.

전남도와 무안군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안국제공항 전경.

다. 지난 3월 전남도와 무안군의 진에어, 제주항공과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정기노선 운항에 대한 업무협약에 이어 7월 전남도의 중국 룽에어와 항저우 정기선 운항 협약, 무안군과 ㈜하나투어와의 여행객들을 위한 업무협약과 항공사의 정기노선 운항에 대한 운항장려금 지원 등 무안국제공항 활성

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룽에어와 항저우 정기선 운항 협약에 따라 오는 9월 중순부터 주 2회 운항하게 된다.

또 전남도는 9월부터 항저우 정기선 운항에 맞춰 중국 관광객들을 위한 전남지역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글로벌 남도한바퀴'를 운행한다. 이는 3박 4일과 4박 5일 코스로 운행할 예정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코로나 19 이후 활기를 띠고 있는 무안국제공항이 중국·라오스·몽골 등의 정기 노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 정기 노선도 많이 운항할 예정이다"면서 "앞으로는 동남아 지역에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는 만큼 타 지역 이용객들도 더욱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후반기 목포시의의회 조성오 의장 선출



목포시의의회는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 상임위 선출...후반기 일정 시작

제12대 목포시 의회(의장 조성오) 후반기 일정이 17일 시작했다.

이날 협동조합 대표로 시작한 목포시의의회는 임시 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후반기 의회 의장에는 조성오 의원(연산·원산·용해동)이, 부의장에는 이동수 의원(상·삼향·육암

동)이 선출됐다. 상임위원장으로 의회운영위원장인 정재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담동), 기획복지위원회장에 최현주 의원(연산·원산·용해동), 관광경제위원회장에 송선우 의원(산정·대상·죽교·북향동), 도시건설위원회장에 최환석 의원(이로·하당동)이 선출됐다.

한편 목포시의의회는 사무국에 접수되는 주민 민원을 의원이 직접 응대하는 '의원 민원당번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

## “여기가 어디?” 무안에선 내 위치 한눈에

### 도로명판 등 206곳에 주소정보시설...응급 상황 대응력 높여

무안군이 숲길·탐방로 등에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했다.

주소정보시설은 도로명판·기초번호판·건물번호판 등 위치안내 시설이며, 관내 대표 관광지인 무안화산백련지·무안항토갯벌랜드 탐방로·치유의 숲길 구간과 각종 건물 및 편의시설 등 206개소에 설치했다. 이로써 군은 지난 5월 숲길과 탐방로 9개 구간에 각 특색에 맞는 신규 도로명판을 부여한 것에 이어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해 보행자의 위치 편의와 응급상황 신속 대응을 높였다.

특히 무안화산백련지와 무안항토갯벌랜드에는 관광객들이 화장실, 정자 등 편의시설을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시인성을 높이고, 관광지 특색에 어울리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여 경관과 어우러지게 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달 25일부터 열리는 제27회 무안연꽃축제를 비롯해 각종 축제 및 행사에 참



무안화산백련지에 설치된 자율형 건물번호판

석하는 관광객들이 주소정보 시설물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숲길·탐방로에 도로명 부여와 시설물 확충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진도서 탈북민과 함께 '전국 글로벌 올림픽'

### 20일 실내체육관

'전국 글로벌 근로자 통일 한마음 올림픽' 행사가 오는 20일 진도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탈북민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가 주관하며, 진도군·진도군의회·진도경찰서를 비롯해 각 사회단체와 남우의료재단 전남병원 등이 후원한다.

"지금 진도! 세계는 하나! 탈북민도 함께!"를 슬로건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탈북민, 지역

자문위원, 주민 등 약 1,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는 바자회를 시작으로 개회식에 이어 체육 행사, 장기 자랑, 초대 가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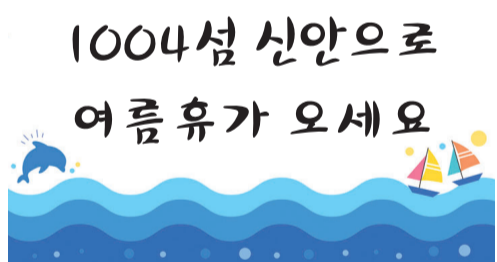
김남중 진도민주평통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탈북민 등과의 교류와 우의 증진을 도모하길 기대한다"면서 "차별 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경험하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kwangju.co.kr

## 홍도 10경·흑산 흥어...그 매력 잊을 수 없어라



홍도 남문바위



### 4 흑산·홍도권

홍도, 낙조맨 섬 전체 물들어 장관 문바위 등 10경 가볼만한 섬 꼽아 흑산도, 청정 해변·기암괴석 절경 바다·숲 조망 일주도로 여행 인기

청정지역 중 청정지역 흑산도와 홍도는 오래전부터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신안에 홍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홍도에 신안이 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을 정도의 유명한 관광명소로 이미 잘 알려진 곳이다.

여기에 신안을 문화예술, 섬마다 꽃피는 섬 정원화 사업 등 창의력을 발휘 개발하면서 새로운 모습들이 더해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신비함이 가득한 곳이다.

낙조시 섬 전체가 붉게 보인다는 홍도는 천연보호구역으로 몽돌해수욕장을 비롯해 동양최대

의 낙조와 오랜 세월 거친 파도에 절경을 이룬 남문바위, 실금리굴, 공작새바위, 부부탑, 독립문바위 등 홍도 10경이 신비함을 자아내고 있어 누구나 한번쯤은 꼭 가볼만한 섬으로 가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한다는 이곳을 다녀간 여행자들의 말이다.

홍도의 33가지의 비경을 유람선으로 약 2시간 30분정도 돌아보면서 비경마다 내려오는 흥미있는 각기 전설을 안내 해설사로부터 듣다보면 어느새 출발점에 도달해버린 아쉬움이 남을 정도이다.

이 10경들은 파도의 침식 영향으로 홍도 전체가 자연이 만든 신의 예술품이라 불리면서 각기 다른 전설을 담고 있어 해설사와 함께 설명도 재미나는 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홍도 자생란인 새우난, 대엽풍란, 석곡, 맥문동 등 홍도 생태환경과 이 마을 전통문화 등을 알 수 있는 생태전시관과 난 전시설도 함께 들여다 볼 수 있다.

흑산도는 우리나라 별미 음식의 하나인 찰진 싱싱한 흥어를 현지에서 맛볼 수 있는 흥어의 고장으로 11개의 유인도와 89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어업을 기반으로 살아온 섬 생활 문화를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곳이다.

섬 전역이 울창한 숲을 이루어 걷게 보인다는 흑산도는 27년에 거쳐 완공된 25.4km의 일주도로가 굽이굽이 12개의 고갯길과 하늘에 있는 듯한 하늘 도로가 개설돼 아름다운 동백 숲과 푸른 바다 등 한 눈에 섬 전역을 바라볼 수 있는 일주

도로 여행이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오염 없는 모래와 청정 바다로 경사가 완만하고 주변 송림과 해안 기암괴석들이 발달해 있는 배나무굴의 뜻을 담은 배낭기미 해수욕장도 가볼만한 곳이다.

또한 여러 유배지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흑산도 수산물 어류학사 자산어보 저술자 정약전 유배 생활 흔적을 돌아 볼 수 있는 흑산 유적 탐방소 명소인 사리마늘과 정약전의 사촌서당과 유배문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어 역사의 현장도 접할 수 있다.

이외 흑산도 성당과 조장골 민속전시관, 지장암과 최익현기념비, 흑산도가야씨 동상과 노래비 등도 발길이 이어진 장소이다.

특히,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를 이도하는 330여종의 철새들 경로 분석과 체계적 조사 연구를 위한 국립공원연구원 조류연구센터, 각종 조류와 이동철새 회귀조류 등에 대한 다양한 스토리와 전시물을 살펴 볼 수 있는 신안철새박물관 등 조류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필히 가볼 곳이다.

휴식공간으로 예리마을은 흑산 향 인근 경관이 좋은 곳에 편의 시설이 갖춰진 모텔과 식당이 많아 흥어요리와 우럭, 불락, 전복 등 싱싱하고 다양한 자연산 회를 맛 볼 수 있다.

또 진리마을은 바다가 어우러진 민박집에서 시원한 바람과 함께 토속 가정식 백반을 먹을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어 편하게 머물고 갈 수 있다.

<끝>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해남 어르신들 '대상포진' 예방하세요

### 군, 65세 이상 저소득층 무료·일반 50% 접종비 지원

해남군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 어르신 접종비를 지원한다.

대상포진은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질병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에서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령일수록 치료 후에도 신경통 등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예방 및 증상 완화를 위해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군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는 무료 접종하고, 그 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어르신은 접종 비용의 50%

를 지원한다.

총 2회 접종하며, 1회당 접종비용은 8만 7,500원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지금까지 관내 65세이상 어르신 총 2,204명이 접종을 완료해 9.3%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칼에 베인 듯한 심한 통증이 발생하면 주의 깊게 관찰하여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며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만큼 아직 접종하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